

5. 사목단상

“어떤 대림시기를 보내고자 하십니까?”

가톨릭 교회는 전례력으로 그리스도왕 대축일(11/23)을 마지막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, 대림 1주일(11/30)을 시작으로 새로운 해를 맞이합니다.

‘대림’(待臨, Adventus: 오심)은 언제나 이중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하나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, 곧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것이고, 다른 하나는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.

그래사케라는 한 신학자는 대림과 성탄 시기의 성찰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.

“**오늘날 대림과 이어지는 성탄의 시기는 그저 상인들이 한몫 잡는 시기로 변해 버렸습니다.**”

이 신학자의 말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마도 형형색색의 조명과 더불어, 분주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행사, 선물 교환 등에 집중하게 되면서 그 본연의 의미를 잊어가고 있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.

때로 우리는 주님 탄생의 신비를 너무나도 희미하게 맞이하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. 기쁘게 성탄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, 더 중요한 것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왜 우리가 다가올 성탄시기에 앞서 대림시기를 보내는지 물음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.

아무도 그보다 더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,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낮은 끝자리에서 탄생 하셨습니다. 어떤 새로운 상품도, 어떤 화려한 쇼핑몰도 결코 건넬 수 없는 하느님의 선물과도 같은 놀라운 성탄의 신비가 이번 대림시기를 보내시며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.

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애틋한 연민의 마음으로, 직접 낮은 곳으로 직접 강생하신 까닭은 우리가 당신의 신비를 몸소 깨닫고, 그 신비를 살아갈수 있도록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.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이번 대림시기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

명례방 모임 (구역 모임)

2025.11.



브루클린교구 베이사이드 한인천주교회

1. 시작기도

- ✚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◎ 아멘.
- ✚ 오소서 성령님,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
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.
- ◎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, 저희가 새롭게 되리이다.
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.
- ✚ 기도합시다.
- ◎ 하느님,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
 바르게 생각하고,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.
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. ◎ 아멘.

2. 말씀 나눔

- 1) 말씀 듣기 : 마태 24,37-44(대림 제1주일 복음)
- 2) 침묵 후 다시 한번 말씀 봉독
- 3) 말씀 나눔

<묵상 더하기>

- 올해 나에게 새로운 새로운 것들은 무엇이었나요? 그 안에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어떤 것이었나요?
- 한 해를 시작하고(교회의 달력) 또는 마무리하는(세상의 달력) 이 시점에서 나는 어떤 것을 이루었고, 또 어떤 것을 꿈꾸고 있나요?
- 4) 자유 기도

3. 본당 공지사항 및 구역별 공지사항

- 11/30(주일)에는 대림시기가 시작되며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. 대림시기의 매주 주일, 혹은 본당 판공성사 기간(12/15(월) 14:00~16:00/18:00~, 12/17(수)20:00~)을 통해 고해성사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. 고해성사를 보신 분들은 성사표를 꼭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12/8(월)은 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입니다. 의무 대축일로 본성전에서 20:30분 한국어 미사가 봉헌됩니다.
- 12/21(주일) 대림 4주일 미사 후에는 대림피정(이상선 요셉 신부님)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

4. 마침기도(위령 성월 기도)

- 깊은 구령 속에서 주님, 당신께 부르짖나이다.
 - 주님,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.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.
 - 주님,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,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?
 -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.
 - 나 주님께 바라네.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.
 -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.
 -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.
 -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.
 -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.
 - 기도합시다.
- 사람을 창조하시고
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,
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
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
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.
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.
- ◎ 아멘.

- 주님,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.
-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.
-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.
- 아멘.